



시로 읽는 성보순례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청운교백운교
국보 제23호 통일신라시대 ▶2면

어진 마음으로 살생을 얹으며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어디로 가나 근심이 없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인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14일) · 주간

제82호 2012년 4월 4일 수요일

금전뿐 아니라 재능도 나눠요

불교계 보시 트렌드 변화... 틈새강연 등 다채

지금까지 사찰에서 불사회사금 등 금전적 보시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수준으로만 진행되던 보시행이 '재능기부'를 비롯한 맞춤형 기부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돼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3월 19일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한 시간 기적' 팀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협약 '한 시간의 기부운동'을 맺었다.

'한 시간의 기부운동'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한 달 동안 번 아르바이트 수익금 중 하루 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모아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아름다운 동행과 협약 하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학생 5명이 '한 시간 기적' 팀을 조직해 직접 기획·진행·관리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기부운동을 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모아진 기금은 학생 한명당 10만원 상당의 한학기 교재로 지원된다.

프로젝트팀장을 맡은 김용찬 씨(동국대 국제통상학과 4학년)는 "기부는 적은 금액, 작은 노력이라도 마음이 우러나와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공감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대학생들이 기부운동에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생들에게 신선함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불교계에는 이런 맞춤형 기부가 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물질 지원 보다는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부가 참여자와 기부단체 모두 선호하기 때문이다.

3월 13~27일까지는 우리은행에서 아름다운동행에 '기부 마케팅 사고방식 구축'과 관련한 강연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재능기부는 참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노력에 대비한 현장에서의 효율이 높다. 불교계에서는 재능기부가 실행활동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찰 사회봉사모임의 봉사활동, 병원불자연합회의 의료봉사 등 직능단체들의 봉사활동은 그대로 재능기부가 된다.

특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진행 중인 '내 꿈 찾기 의지나눔 사업'은 불교계 재능기부의 대표적 사업으로 타종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의지나눔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다양한 직업군 봉사자들이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현장 경험을 제공,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는 서

금전·봉사서 재능기부로

사찰사회봉사가 바로 기부

타종교서 벤치마킹하기도

맞춤형 재능기부 개발 필요

울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2011년에는 가톨릭 재단 '바보의 나눔'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도 했다.

전문분야 재능 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의 재능보기도 늘고 있다. 사보 제작, 합창단, 풍물패 조직, 차보시 모임 등 영역이 다양하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매년 불교기 자학교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수료한 신도들이 조계사보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종보인 불교신문 팹캐스트 서비스 개국 연수에도 재능기부자들이 몰려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매년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많은 역량과 의지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다. 이제는 맞춤형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3월 28일 추대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봉정받은 주정자를 대중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참나 속에 안락과 평화가 있다”

조계종 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추대법회

3월 28일 조계사에서 1만 사부대중 운집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眞際法苑) 대종사의 추대식이 3월 28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진제 종정스님은 대중에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라는 화두와 함께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있다”는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 “남북이 함께 비폭력을 실천해야 한다”며 시대의 화두로 평화통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사는 조계종 원로회의의 부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전국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관계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미 종교학자이자 람비 잭 벤포라드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스님은 “참나 가운데 밝은 지혜가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복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해 ‘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마음의 가지가지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은 오직 참선뿐”이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 참선을 잘함으로써 편안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진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자비무적 정신으로 통일을”
이 대통령 “부처님 지혜로
마음 밝혀 나라 발전하길”

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참선을 생활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정스님은 “은 세계가 한집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돌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며 돌고 가난한 이를 내 몸 같이 사랑하고 보살피자”고 말해 이웃과의 나눔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종정스님은 “남북이 함께 비폭력·자비무적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남북통일이 하나 되어 통일조국을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종정스님은 유구한 한국 불교의 정통을 이어가실 분이다. 나와 모든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부처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밝혀 모두 화합하고 나라가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미 국가조찬기도회에 진제 종정스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했던 람비 잭 벤포라드는 “미국에 여러 불교가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불교인지 의구심을 가졌었다. 진제 종정스님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불교를 접했다”고 말했다.

벤포라드는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활동해 온 불교인들이 지나치게 서구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했다”며 “진제 종정스님은 자신이 수행해 온 불교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글=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중국정부는 티벳 탄압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총회, 성명서 채택

“티베트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인과 함께 중국정부의 탄압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신)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티베트 탄압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월 30일 제189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채택했다.

총회는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120만명이

넘는 티베트 국민들이 죽어갔으며 수백만 난민들이 인도를 비롯한 세계를 떠돌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소신을 단행한 이들의 신명 양도와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승려에 대한 총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해발전은 인류와 공존할 수 없는 뱀”

4대종교인, 합동세미나 자리서 탈핵·탈원전 선언

“해발전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인류와 공존할 수 없는 악이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4대종교인들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생명과 탈핵’ 주제 합동세미나에서 탈핵·탈원전을 선언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장 범용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재 목사, 원불교의국인센터 최서연 교무, 천주교 주교회의 양기석 신부 등 4대종교인들은 핵발전은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회생을 강요하는 행위이자,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일로 규정했다.

이들은 “탈핵·탈원전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문명적 전환’은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인류 앞에 놓인 커다란 이정표임이 확인됐다. 모든 종교인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4대종교인들은 탈핵·탈원전을 위해 종교간 연대를 비롯해 국제적 연대 등 인류가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전환의 기술적·경제적 부문에 있어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분과위, 만장일치

문화재청 무형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돈희)는 3월 30일 고궁박물관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2월 9일 지정 예고했던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등회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동섭 기자

사령

신규 김주일
명)편집국 취재부장

신규 정혜숙
명)편집국 취재기자

이상 2명, 2012년 04월 02일부

신규 신중일
명)편집국 취재기자

이상 1명, 2012년 04월 09일부

882호 CONTENTS

중단 조계종 189회 임시중앙총회 2

종합 조계종 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식 조계종 1000일 결사 입재 3

시방세계 도심속에서 '마음의 길'을 걷다 5

중립학교를 가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12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大韓佛敎曹溪宗 봉녕사

한국불교 비구니 승가교육의 산실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인재발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명실상부 비구니 양성 도량으로 자리한 봉녕사에 신입생을 보내주시는 사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학양성과 봉녕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봉녕사 선우회 동문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든 대중은 세주당 모임 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봉녕사를 승가교육의 요람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모임 크스님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크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이나 기록물을 소장하고 계신 스님들 또는 신도님들께서는 봉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봉녕사 총무소 ☎ 031)256-4127, 242-5412
이메일 : bong4127@hanmail.net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도혜 · 금강울학승가대학원 울원장 적연 · 주지 자연 대중일동 합장